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향상 효과를 위한 미술프로그램 개발 연구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s self-esteem

Ar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김연수^{1*}

Yeoun Soo Kim^{1*}

요약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국가 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아동은 부모의 각기 다른 문화의 혼재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약화된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생성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 간의 복합적 가족 형태인 다문화 가정 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존감 향상 효과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아동 상호간의 미술적, 심리적 연관 관계성을 통하여 자존감 향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어 : 다문화 아동, 자존감, 미술 교육 프로그램

Abstract

In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families is increasing rapidly to the expansion of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the entry and the country of foreign workers. Children of these multicultural home, shows the self-esteem that has been confusion and weakening of identity in a mix of parents of different cultures. In the present study, artistic of children each other art programs for the rapidly generated is a complex family structure between the various countries and ethnic groups has been to target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in the home with self-esteem improvement in our country, psychology When we try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esteem improvement through the relevance relationship.

Keyword : Multicultural children, Selfesteem, Art Education program

1 Dept. of cultural Studies, Kookmin University, Seoul, 02707, Korea

e-mail : ivette1@empas.com

Received(July 18, 2016), Review(August 01, 2016), Accepted(December 05, 2016), Published(December 31, 2016)

1. 서론

현대는 다국적 교류의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국제결혼이 증가됨으로써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복합적 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현대는 어느 사회와 문화도 자신이 가진 문화를 폐쇄적으로 고집할 수 없으며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 문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와 적극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이다. 따라서 문화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공존 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모든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 없는 동등한 가치 인식과 수용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이중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또래 아동들의 편견과 사회적 선입관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약화되고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심리적 우울과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속한 또래 사회집단의 소속감과 연대감이 약하며 심지어 가정 내 부모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갈등관계가 있다.

이러한 소외된 감정들은 학교 내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부적응을 나타내고, 학업의 부진과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비행청소년이나 정서적 불안 장애를 앓게 되어 사회적 문제화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문제점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과 학교생활 적응, 사회성 등을 주제로 하여 2007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자존감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학교생활 적응 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존감향상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후속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언어적 표현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서툴고 어려운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미술은 자기표현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며 주관적 생각이나 느낌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소양을 제공한다. 또한, 미술에는 감정과 표현능력 발달, 창의성 발달, 신체적 발달, 미적 감각, 언어능력, 사회성 발달 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반영되어 있다. 다문화 아동에 있어서의 미술은 언어로서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언어적 표현인 미술을 통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돕고자 한다.

2. 관련연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학습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이다. 학교의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미술은 다문화주의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목이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교육에 활용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미술교육은 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교육과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교사와 맞춤형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으로 특별반 미술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미술 교육을 함으로써 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타문화와의 비교체험 등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2]. 또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곧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본다[3].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대안학교와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가 있다. 외국인 대안학교는 국제 결혼한 부부 또는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다. 대안학교에서는 다문화 아동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상담과 진로교육을 더불어 하는 다문화아동 중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종 특기계발활동과 축제를 지원하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4]. 그러나 대안학교의 미술 교육은 미술 전담교사가 아닌 외부 협력교사를 수업에 활용하기 때문에 미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5]. 따라서 다문화아동에게 맞는 맞춤형 미술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체로 외국인 대안학교의 미술 교육 수업은 사물에 대한 관찰표현과 만들기 위주로 진행되어 표현 위주인 수업으로만 이루어진다.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미술 수업이 필요하다[6].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학습의 부진을 최소화하며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연구보고서」에서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정체성이 평균 3.79(5점 만점)로 사전보다 0.12점 향상되었으며 주체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외국인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이 줄었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기수용능력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성도

높아졌으며 일반 아동들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존중감과 수용성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7].

그러나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수업이고 정부의 지원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예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12개 학교를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만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운영하였다[8].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의 미술교육은 방과 후 다문화가정아동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며,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미술 교육 과정 수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9].

3. 다문화 아동 자존감 향상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론

3.1 연구 대상

A는 11세 남아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다. 한국인 친어머니는 A가 어릴 적에 아빠와 이혼을 했으며 어머니와의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A가 7세 때 아빠가 중국인 새어머니와 재혼을 한 상태이다. 중국인 어머니와의 사이에 4세 남동생이 있으며 곧 태어날 동생이 있다. A의 15세 친누나는 중국인 새어머니와의 마찰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다. 중국인 새어머니를 잘 따르고 새로운 가정에 있는 A를 친누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A는 4세 남동생을 돌보며 가족의 유대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나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도 중국인 새어머니로 인하여 또래 학년들의 놀림을 받아 잦은 싸움이 있었고 새로이 학교를 옮긴 상태이다.

B는 9세 여아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어머니는 중국인이며 아버지는 한국인이다. 4세 동생이 있으며 동생과 주로 많은 시간을 같이 한다. A는 또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싶어 하며 외모에도 관심이 많다. 또래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몇몇 같은 다문화 아동들과의 교우관계가 있을 뿐이다.

C는 9세 여아로 초등학교 2학년이다. 어머니는 재혼 중국인이며 아버지는 한국인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16세 오빠가 있으며 오빠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B가 3세 때 중국인 오빠와 한국으로 건너와 같이 살게 되었으나 오빠는 아직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B는 학업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오빠를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 말수가 적고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잘 어울리지 않으려 하며, 또래 학년과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3.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2주 동안 총 12회기로 주 1회 60분 실시하였다. 미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사전 검사를 받았으며 개인 작업과 협동화 등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으로 각 회기별 참여자의 행동과 변화를 관찰 기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하에 각각의 기록과 그림을 연구자가 보관하였다. 사전, 사후 척도검사에서 자아 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 존중감 척도는 우리나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최보가와 전귀연(1992)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를 사용하였다.

4. 미술교육 프로그램 계획안

다문화아동의 자존감 향상증진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초기 3회기, 중기 7회기, 종결기는 2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초기에는 자아 존중감 검사지를 통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 상태를 체크한다. 자기를 표현하는 아바타 만들기를 통해 자기소개를 하며 함께 할 대상들과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형성한다. 2회기에는 집-나무-사람 동적검사를 통해 현재 아동의 상태를 체크하고 지도방법을 구체화한다. 3회기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을 만들어 보며 감정을 이완시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중기는 자신을 인식하고 가족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4회기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콜라주 작업을 통해 표현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5회기에서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짚어본다. 6회기는 초대하고 싶은 인물을 통해 소중함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7회기는 대상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협동화를 통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의논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행동을 인지·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회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문화적 상황을 인정하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회기에서는 엄마를 소개하며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9회기를 통해 이전에 자신에게 있던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10회기에서 희망을 표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생활에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종결기에서는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며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현실에서 실제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종료한다. 12회기는 미래를 만나는 현실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표 1] 다문화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증진 미술교육 프로그램

[Table 1] Improving self respect persimmon of multicultural children's arts education programs

단계	회기	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준비물
초기	1	아바타 만들기	치료사와 아동 간의 라포 형성하기	자아 존중감 검사,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의 아바타를 점토로 꾸민다.	검사지, A4용지, 연필, 찰흙, 조각칼
	2	진단 검사	K-HTP 검사	도화지에 연필을 이용하여 집, 나무, 사람의 모습을 그려본다.	도화지, 연필
	3	나의 보물	감정 이완 및 친밀감 형성	도화지에 나의 소중한 보물을 그려 본다.	도화지, 반짝이 풀
중기	4	나의 장점과 단점 표현하기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표출한다.	잡지를 이용하여 콜라주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꾸며본다.	딱 풀, 가위, 잡지
	5	나에게 힘이 되는 것 표현하기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자신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것을 그림이나 상징으로 표현한다.	도화지, 연필, 색연필
	6	초대 식단 꾸미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가시킨다.	도화지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초대장을 만들고 칼라 점토로 식단을 꾸민다.	칼라점토, 도화지, 사인펜, 장식구슬
	7	협동화 그리기	협동 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전지 위에 수채물감을 이용하여 협동화를 그려본다.	수채물감, 붓, 도화지
	8	엄마의 나라 소개하기	엄마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엄마의 나라를 알아보고 도화지에 꾸며 본다.	사진자료, 도화지, 사인펜
	9	부정적 감정 버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하기	도화지에 자신이 버리고 싶은 점을 적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찢어 버리기	도화지, 사인펜
	10	희망나무 꾸미기	희망적 미래를 상상하기	희망하는 것을 나뭇잎에 써서 나무 모양에 붙여주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방안 모색하기	나뭇잎 모양 메모지,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종결	11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미래의 자신에 대한 편지 쓰기로 자신이 희망하는 목표를 구체화시키기	도화지, 연필, 사인펜
	12	친구 선물 만들기	긍정적 자아 인지하기	칼라점토를 이용하여 친구에게 주고 싶은 선물 만들기	칼라점토, 사인펜, 포장지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상 아동의 분석 및 변화에 결과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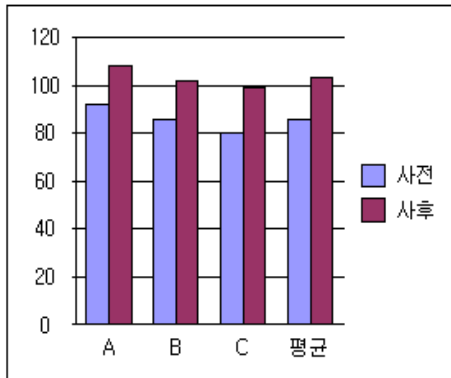
[표 2] 미술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아동 분석 및 변화

[Table 2] Art education subject after the children's program analysis and change

	초기	중기	종결기
A	- 또래 친구, 가족 간의 갈등 표현	- 동생에 대한 애정 표현 - 가족 간의 갈등관계 개선 노력	- 또래 친구, 가족 간의 관계 완화 -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B	- 또래 친구 간의 관계개선 희망	- 가족에 대한 이해력 증가 - 또래친구 간의 관계 개선 위한 적극적 태도	- 또래 친구 간의 관계에 희망적 시도 - 긍정적 여유를 가짐
C	- 소극적 태도로 인한 또래관계 형성 미흡, 관계개선 희망 - 가족의 사회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갈등	- 가족에 대한 애정표현 - 오빠에 대한 이해	-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 - 또래친구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5. 자아 존중감 검사 분석

다문화가정 아동 3명에게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 존중감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아동 3명의 자아 존중감 평균점수는 86점이었으나 사후에 103점으로 17점이 향상되었다. 가장 소극적이며 자기 표현이 적었던 C는 +19점이 향상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보다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검사를 통하여 사전-사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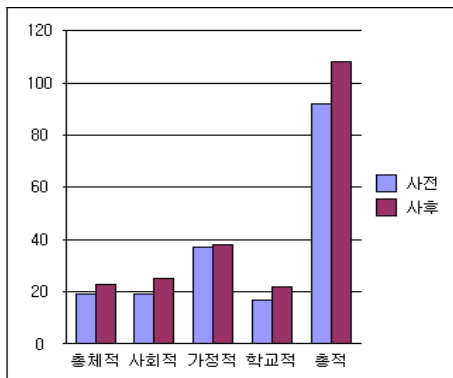
아동 명	A	B	C	평균
사전	92	86	80	86
사후	108	102	99	103
비교	+16	+16	+19	+17

[그림 1]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 차이비교

[Fig. 1] Compare pre-and post-a sense of self-esteem

5.1 A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분석

A아동의 전체적 자아 존중감 점수는 92점이었다. 동생이 태어나면서 가족 간에 유대감이 더해져서 가정적 자아 존중감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후에는 108점으로 16점이 향상되었다. 예전에 심리 치료프로그램 경험이 있어서인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던 A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수업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의사표현이 많아졌다. A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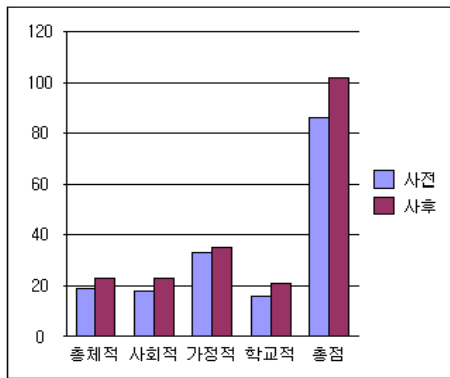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총점
사전	19	19	37	17	92
사후	23	25	38	22	108
비교	+4	+6	+1	+5	+16

[그림 2] A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분석

[Fig. 2] Self respect persimmon of A prior comparative post

5.2 B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분석

B아동의 전체적 자아 존중감 점수는 86점이었다. A와 마찬가지로 가정적 자아 존중감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적 자아 존중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B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사후에는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적 자아존중감이 각각 5점씩 향상되었고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긍정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B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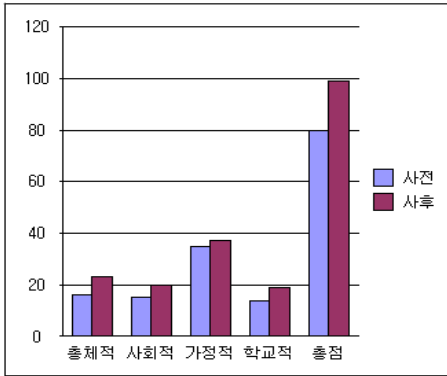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총점
사전	19	18	33	16	86
사후	23	23	35	21	102
비교	+4	+5	+2	+5	+16

[그림 3] B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분석

[Fig. 3] Self respect persimmon of B prior comparative post

5.3 C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분석

C아동의 전체적 자아 존중감 점수는 80점이었다. 사전과 사후 가장 변화가 적은 것으로는 가정적 자아 존중감 점수이며 프로그램 참여 아동 모두 가정 내의 자아존중감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C는 전체적 자아 존중감 점수가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 중에서 가장 낮은 학생이었으나 사후에는 19점이 향상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C는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로도 자주 찾아와 자신의 근황과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학생이다. 처음과는 달리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전하는 밝아진 C의 모습에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C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비교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적	총점
사전	16	15	35	14	80
사후	23	20	37	19	99
비교	+7	+5	+2	+5	+19

[그림 4] C의 자아 존중감 사전-사후검사 분석

[Fig. 4] Self respect persimmon of C prior comparative post

6.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 향상은 미래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잠재력 있는 큰 자산이다. 다문화아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스스로 자존감을 기르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그들이 사회성을 경험하고 기르는 첫 걸음의 장소인 만큼, 학교를 통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진다면 문화경쟁시대에 더 나은 발전을 꿈꿀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이 올바르게 정착,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가 연계되는 시스템과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적이고 융통성 있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과 전문적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미술교육전담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방적, 획일적 지원과 진행이 아닌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잠재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의 프로그램으로서 개인별 맞춤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이다. 세계는 다양성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다양성의 흐름에 맞게 현 시대를 수용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세계화의 흐름에 모여야 한다.

다양성의 장점을 양성하고 세계화 된 창의성을 창출하여 보다 나은 세대를 위한 교육은 다문화

가정속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다음 세대의 주역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와 다름이 아닌 다양성과 공존의 개념으로 이 시대 아이들이 균형적 이해와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을 통한 잠재력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환경 조성은 우리 시대의 중요 과제이다.

References

- [1] W. J. Hagborg,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A concurrent validity study", *Psychology in Schools*, (1993). Vol. 32 No.2, pp. 132-136.
- [2] Bo Ga. Choi , Mi Hwa. Song, "Preschool Children's Judgment on Moral and Conventional Ru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996), Vol.34 No.4, pp. 49-62
- [3] Sunnie Lee. Watson, Gilbert C. Park, "Towards Progressive and Dynamic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ers' Awaren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2005) Vol. 7, No, 1, pp. 57-74
-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education plan". Seoul, Republic of Korea, MEST. (2008).
- [5] Kendall, F. E, "Diversity in the Classroom: A Multicultural Approach to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ries", Teachers College Pres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1983).
- [6] F. J. Silberstein, D. A.,Sisk, Visual imagery as a training tool. In S. M. Fowler & M. G. Mumford, "Intercultural Source book: Cross-Cultural Training Methods", (1999), Vol. 2, pp. 185-194.
- [7] Caulley, D. N,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2007), Vol 7, No 2, pp. 106-108.
- [8] G.M Gha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 learning",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2002), Vol.30 No.3, pp, 263-273.
- [9] Levitt, M. J., Guacci-Franco, N., & Levitt, J. L,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multicultur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94), Vol 15, No 2, pp. 207-222.